

“동생을 제가 죽였어요”
지난달 30일 일어난 서울 마포구 대흥동 권아무개(9)양 살해방화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6일 그동안 4차례나 거짓말로 둘러대던 권양의 오빠(10)로부터 마침내 자백을 받아냈다.

이 순간 권군에게 큰 혐의점을 두고서도 설마했던 경찰과 담임선생님 등은 10살난 국민학생이 친동생에게 저지른 끔

직한 살인과 외부인의 소행처럼 꾸미려고 불까지 지른 대담함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군은 사건 직후 “집배원 차림을 한 40대 아저씨가 들어와 동생과 나를 전화줄로 목 졸랐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뜨거워 밖으로 나왔어요” “동생이 발가벗겨진 채 아랫도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라며 외부인의 짓인 것처럼 대담

하게 범행을 숨겼다.

권군은 특히 의심을 품는 경찰에게 “내가 동생을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대들기조차 해 경찰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권군의 범



친동생 살인의 ‘진짜범인’

행 뒤에는 생업에 얽매어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부모의 무관심과 전자오락, 폭력비디오 등 유해환경이 ‘진짜 범인’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두부장사로 어렵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부모는 1주일에 한두번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장사에만 매달렸고 이런 환경에서 자란 권군은 국어책조차 제대로 읽지 못해 특수반에 편

성됐지만 전자오락과 비디오에 관한 한 ‘도사’로 통했다.

마구 깨부수고 쏘아죽이는 전자오락은 늘 1등이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쇳물을 부어 동상을 만드는 내용의 비디오는 그가 접할 수 있는 보통 수준의 것이었다.

이런 가운데 권군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행위에 익숙해져

갔고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뒤에도 폭력비디오에서처럼

동생 목에 전깃줄을 감고 불까지 질러 범행을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미성년자여서 부모의 손을 잡고 경찰서를 나서는 권군의 뒷모습을 보며 한 경찰 간부는 “고아 아닌 고아로 길러진 권군은 커서 무엇이 될까”라는 안타까운 독백을 되뇌었다.

〈정재권 기자〉